비올라의 밤

22일 윤진원·조현영 연주회

'눈물'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등을 베스트 셀러로 만든 연주자 리처드 용재 오닐 덕에 요즘 비올라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들이 많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올리스트 윤진원〈사진 왼쪽〉씨와 피아니스트 조현영〈오른쪽〉씨가 음악팬들을 멋진 비올라의 세계로 초대한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 동문으로 오래전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은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비올라의 밤'을 개최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비외탕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미완성 소나타', 슈베르트이 '피아노와 비올라을 위한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에네스코의 '콘서트 피스' 등이다.

멘델스존 콩쿠르 1위를 차지한 윤씨는 서울대 등에 출강하며 현재 서울 바로크 합주단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전남대 출신으로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조 씨는 전남대 등에 출강중이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매년 한차례씩 듀엣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2-227-74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허방', 연극 '불꽃놀이'에 청각장애인 초청

"수화로 전한 무대…감동, 더 진하죠"

지난 17일 광주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궁동예술극장을 찾은 연극 관객들은 익숙치 않은 광경을 접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 이외에 검정색 정장을 입은 두명의 '낯선 사람들'이 공연 내내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연 작품은 극단 허방(대표 김영학)의 5·18 연극 '불꽃놀이'.

공연 내내 배우들과 함께 한 두 사람은 전문 수화통역사였다. 이날 소극장에는 일반 관객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30명이 난생 처음 연극 공연을 보기 위해 나들이를 했다.

공연이 진행되는 1시간 내내 김지영(여·27) 김창호(35)씨는 끊임없이 '손으로' 대사를 전달했다. 가끔은 표정 연기까지 덧붙이며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미리 대본을 전달받아 내용을 숙지한 두 사람은 6명에 달하는 배우들의 역할을 나누어 통역했다.

김창호씨는 "보통 드라마를 볼 때 소리를 죽이고 보면 그 감동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소리'를 수화로 보여주지 않으면 청각장애인들은 연극 작품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며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청각 장애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 다양한 문화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씨는 "몇년전 광주비엔날레에서 도슨트로 참여한 친구의 부탁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그림 설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으레껏 자신들은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17일 궁동예술극장에서 열린 극단 허방의 '불꽃놀이' 공연에서 수화통역사(무대 뒷쪽)들이 배우들의 대화를 전달하고 있다.

수화 통역사 출연 연극 내용 설명 … 문화 바우처 첫 시도

이날 공연을 본 김혜준(13)군은 "연극 공연이 처음이어서 신기하기는 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재미있는 연극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수화 통역사들과 처음 함께 무대에서 선 배우들은 어땠을까. 소극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통역사들과 함께 호흡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을까 우려도 있었는데 배우들은 연기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처음 한 두번 시선이 마주치기는 했지만 금방 그들의 존재를 잊고 연극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김경진씨는 "일반 공연에서는 대사 처리가 약간은 미숙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데 장애인들 분들은 그런 점에서 공감할 수 없으니 통역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발음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배우 김소정씨는 "공연 후 나가시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장애인분들을 보니 행복했다"고 말했다.

사실, 일반 관객들에게 수화 통역이 연극을 '제대로' 관람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연출자가 공연 전에 오늘 공연이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자 대다수 관객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바우처를 진행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처음으로 시도한 프로그램이었다.

위원회측은 청각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작품 선택권을 주고 싶었지만 일부 극단의 경우 '일반 관객'들의 관람과 배우들의 연기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도 했다.

위원회 정혜영씨는 "처음으로 시도한 프로그램이라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연령층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청각장애인들이 좀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062-381-22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영 아티스트에 관심을

30대 초반의 전업 화가 Y씨는 자신의 호당작품가격을 모른다. 화가가 자기의 그림 값을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이유는 대학 졸업 후 지금껏 그림 한점을 팔아 본 경험이 없어서다. 개인전이라도 열면 가까운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한 두 점 사주었겠지만 왠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전시회 따위는 포기한 지 오래다.

밥벌이도 못하는 '말뿐인' 직업화가를 때려 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림이 좋아' 여지껏 캔버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년 전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 문을 연 미술학원이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다. 학교만 졸업하면 제 앞가림 정도는 할 것으로 기대했던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간 마음이 착잡한 게 아니다.

그런 Y씨를 요즘 더욱 자괴감에 빠뜨리는 것이 있다. 미술품 경매 열풍이다. '자고 일어나면 억(億) 억하는' 그림 값 때문에 가뜩이나 비참한 처지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일찍이 그림으로 먹고 사는 행복을 접은 그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미술품 가격 앞에서는 의연하기가 쉽지 않다.

비단 Y씨 뿐이겠는가. 대부분의 20~30대 젊은 작가라면 근래 미술시장의 활황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미술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광주 지역 작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지난해 초부터 불기 시작한 미술품 경매 열기는 철저히 서울과 부산에 집중돼 지역작가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게다가 박수근, 이중섭 등 작고작가에서부터 이우환, 천경자, 이대원 등 원로·중진작가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져 시장의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신진작가나 청년작가의 경우 일부 화랑의 '큰손'들이 '띄워주지 않는 한' 경매시장에 진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미술시장의 단기간 급성장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 때문이다. 최근 경매시장은 일부 인기 작가의 작품만 계속 가격이 오르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부 '팔리는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소위 '블루칩' 작가와 스타작가 20%만이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전남대 문화예술특성화 사업단이 주최한 'Young Art Fair'(16~20일·롯데화랑)는 참신한 시도로 꼽힌다. 미술품 거래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그것도 20~40대 젊은 작가들을 위한 무대라는 점에서 침체된 지역미술계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맥 위주의 작품 구입에 익숙한 지역 컬렉터들에게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한 점은 이번 아트페어의 가장 큰 순기능이다.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된 미술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작가들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 아트페어'와 같은 이벤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청년작가들이 소외받는 한 광주미술의 내일은 밝을 수 없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배진희 피아노 독주회

오늘 조선대 음악관 연주홀

배진희〈사진〉 피아노 독주회가 19일 오후 7시30분 조선대 음악관 연주홀에서 열린다.

조선대 음악교육학과 출신으로 독일 부퍼탈 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음대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마친 배씨는 광주피아노 듀오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목포대에 출강중이다.

연주 곡목은 바르톡의 '오스티나토', 리스트의 '물 위에서 노래함' '봄의 신앙', 드뷔시의 '어린이 차지, 쇼팽의 '환상곡 F단조 작품 49' 등이다. 문의 062-225-22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 그리운 금강산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22일부터 금강산 기행전

'민족의 영산(靈山)'인 금강산은 문학과 예술 각 부문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조명돼 왔다.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 시대를 열었던 조선시대에는 금강산의 절경을 주로 다룬 미술인들을 부르는 '금강산 유파'라는 미술사조가 탄생하기도 했다.

광주 지역 미술인들이 북녘의 금강산을 화폭에 담은 '아! 그리운 금강산 기행전'이 22일~12월1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과 대동문화재단은 이 전시를 위해 광주 지역 작가들과 함께 구룡동과 만물상, 해금강 코스 등 금강산의 수려한 풍광을 스케치하는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작품 속에 통일을 염원하는 소망을 녹여냄과 동시에 조국 분단으로 빚어진 민족의 아픔을 형상화했다.

참여작가는 김영삼 김종경 박구환 박문수 박태후 오견규 이병오 이혜경 조문현 조진호 한부철씨 등 11명.

장경화 광주시립미술관 분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357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견규 작 '만물상을 오르며'

내년 기획 공연작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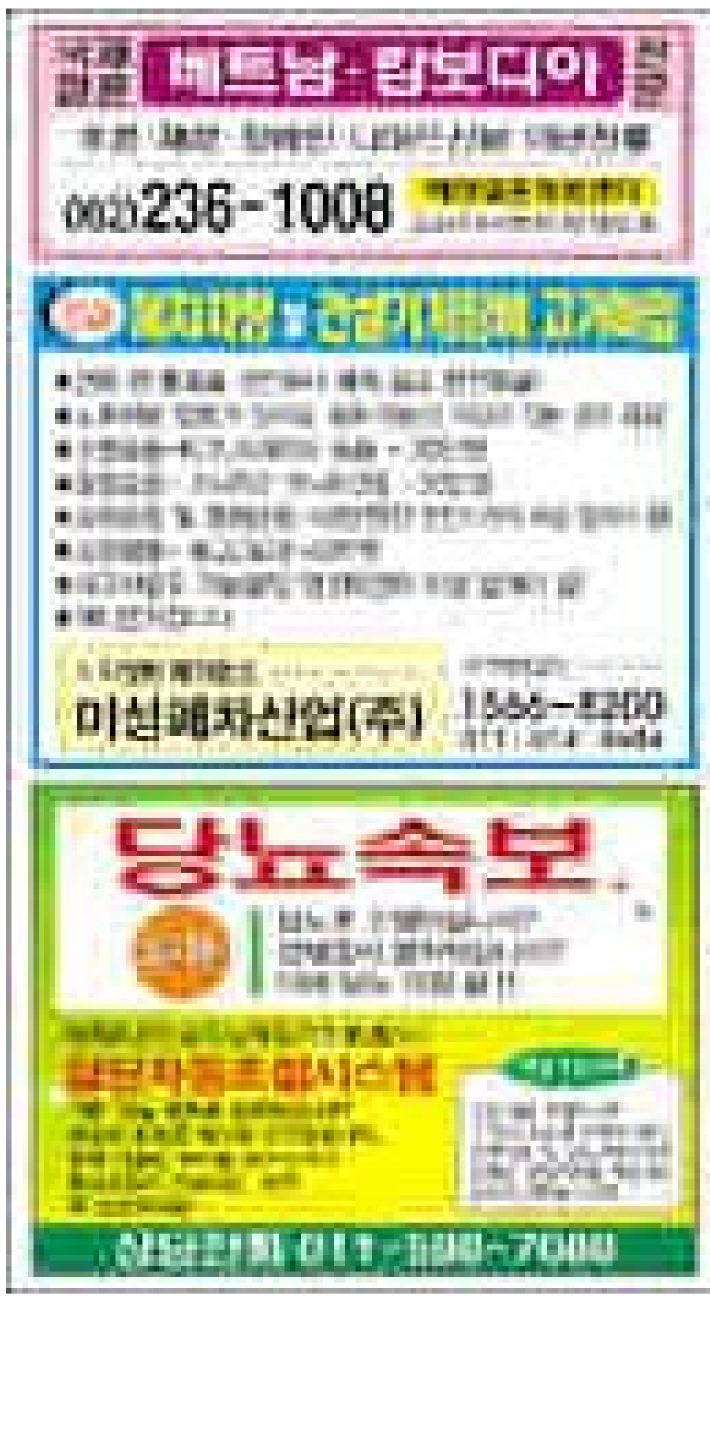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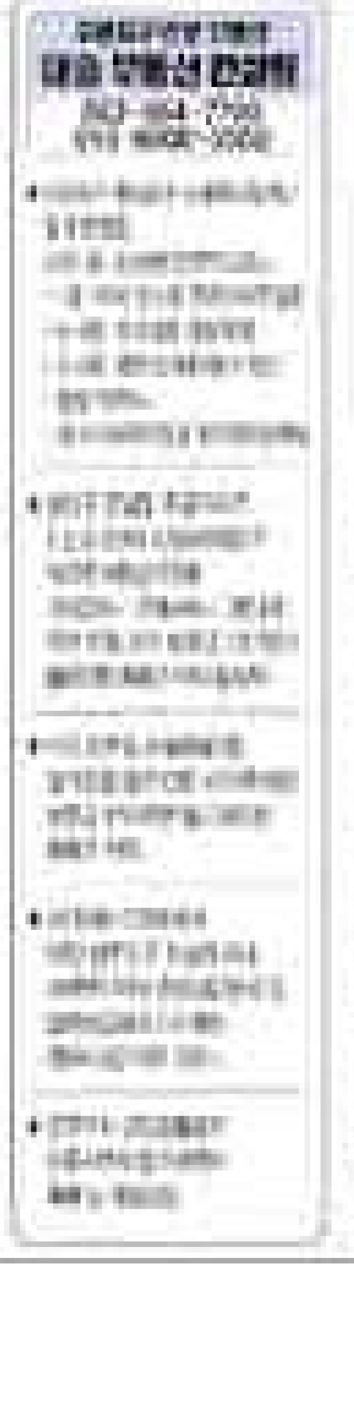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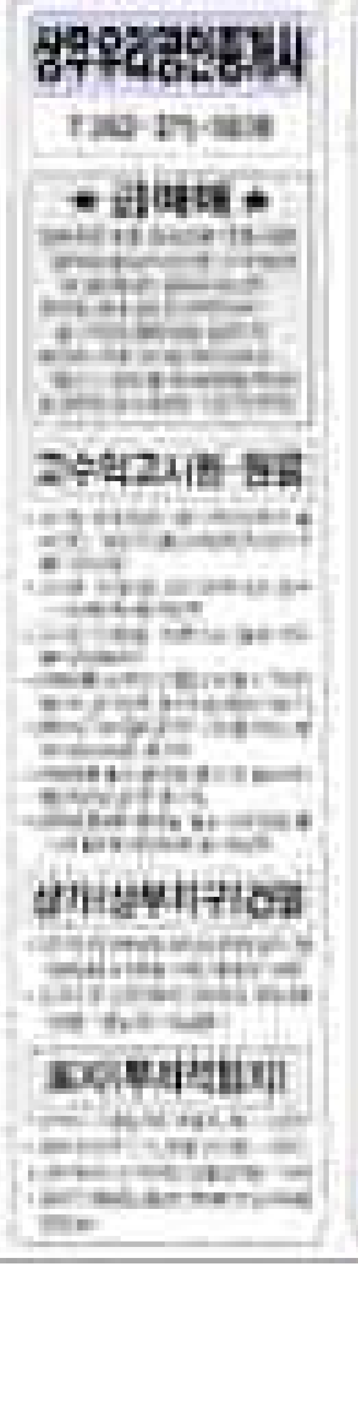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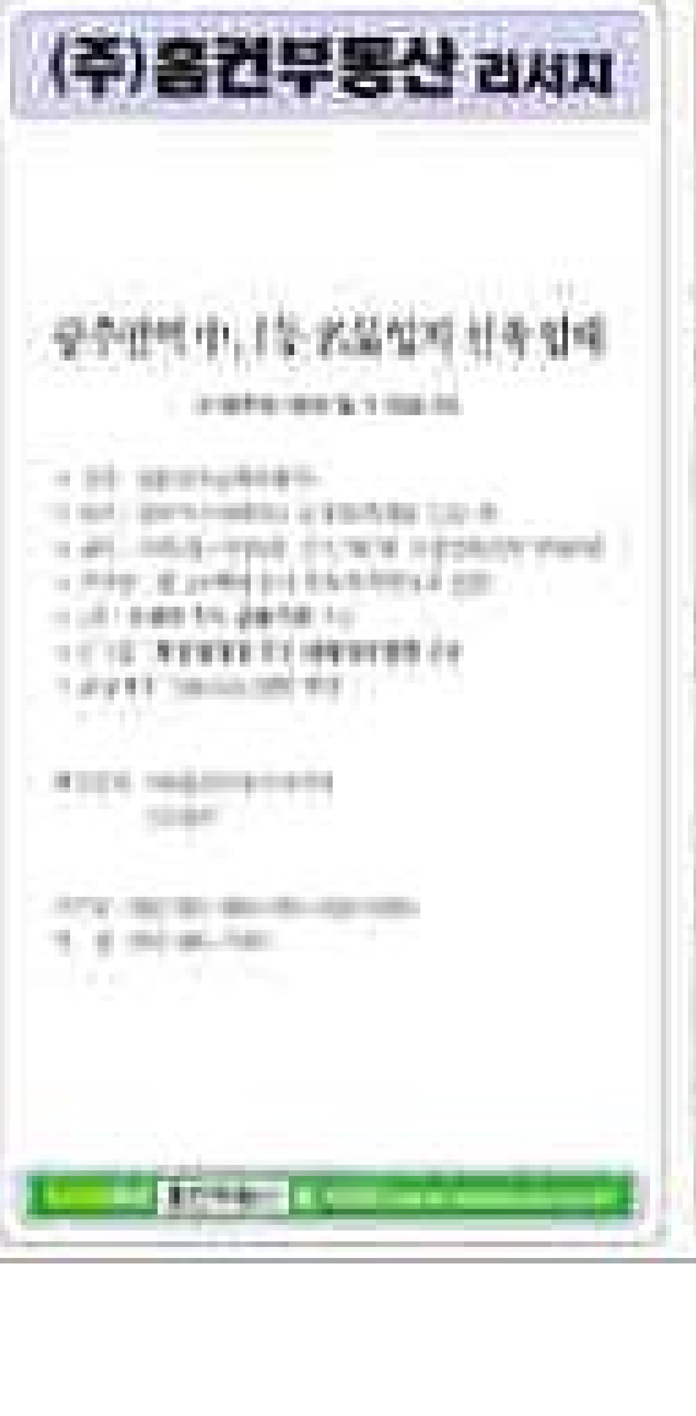
광주문예회관 12월5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2008년도 기획 공연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대상 분야는 남도소리상설무대와 화요예술무대로 각각 10작품씩이다.

'남도소리 상설무대'는 창극, 판소리, 전통무용, 풍물 등 전통국악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화요예술무대'는 음악, 무용, 연극, 콘서트 등이다.

선정된 작품에게는 대·소극장 무료 대관, 장비·기계·시설 운용인력·기초 소품 등을 제공된다.

마감은 오는 12월 5일(수)까지다.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